

# 서양신발의 사적고찰과 미적가치 I

이 현 주\*(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최 현 숙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부분적 디테일의 고려보다는 의상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전달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대 패션에서, 토탈 패션을 완성하는데 가장 불가결한 품목 중의 하나로 신발을 들 수 있다.

착용자의 내적 자아를 외적 형태로 표출하는 의복의 도구적 역할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현대인에게 있어 신발은 전체적 표현의 최종적인 마무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20세기 말 무렵부터 다수의 패션관련 언론매체가 기사를 통해 신발의 중요성을 재조명 해왔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갤러리에서의 아트 슈즈 전시회를 비롯하여 박물관에서의 역사적 신발 전시, 유명 신발 브랜드의 콘테스트 등이 숫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반인과 패션 전문가들의 신발에 관한 관심을 고양시켜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양 신발의 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수 천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며 다양한 외형의 신발을 통하여 인간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내재적 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1세기를 맞이한 현대패션 디자인에서 신발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현재까지 신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사실상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고찰과 규명을 바탕으로 복식사 분야에서 특히 신발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변천의 외형적 모습과 내적 의미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발 디자인의 전

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 데도 연구의 의의를 둔다.

연구 방법으로는 서양 신발의 사적 고찰을 위한 문헌적 연구로서 의상과 미술 관련서적, 도록, 의상 및 신발 관련 잡지 등을 조사 연구하며, 부수적 자료로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미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문헌연구는 의상학, 미학 및 예술학 분야의 관련서적을 참고로 한다.

연구 범위는 지역적으로는 서양 신발에 국한된 연구로 제한하며, 사적 고찰의 범위는 신발의 기원과 발생에서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서양신발의 사적고찰의 세부점들은 논문 본문을 통해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서양 신발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대별하여 보면 1. 신체 보호성 및 신체 능력 확대성 2. 장식 욕구의 표현 3. 성적 표현성 4. 품위와 신분 상징성 5. 패션성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가 서양 신발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의 제 1보로 수행되었으므로, 후속연구로는 동일한 분석틀과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신발에 관한 사적고찰 및 미적가치를 파악함으로써, 통합적 시각에서의 비교 문화적 연구로 시행하고자 한다.